

# 1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평가

유창형 박사 /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 1. 서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형상이 상실되었고, 구원이란 바로 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전체 신학구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논제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개혁파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칼빈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신형상론에 대한 칼빈의 정의와 더불어 필자가 특별히 관심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칼빈의 신형상이 실재론, 관계론, 기능론 중 어디에 속하는지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빈의 견해가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포함시켰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이 지배권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나아가서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이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생태신학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이 소논문의 목적이다.

## 2. 본 론

### 1)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빈의 이해

#### (1)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버나드가 형상(첼렘, tselem)을 영혼의 본체에, 모양(데뮬, Demut)을 영혼의 속성에 적용시킨 반면에<sup>1)</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표현이 다소 모호해서 다시 설명하기 위해 ‘모양대로’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보았다.<sup>2)</sup> 즉, 칼빈은 형상과 모양을 동의어로 보았다.<sup>3)</sup> 이런 칼빈의 견해는 루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루터는 창세기 1:26의 형상과 모양은 별개의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일상적이며 습관적인 병행법의 한 예라고 보았다. 따라서 타락 전이나 타락 후에도 형상과 모양 사이

에는 어떤 구별도 없다고 보았다.<sup>4)</sup>

칼빈과 다소 다르게 그루뎀은 형상은 어떤 사물과 비슷한 대상이나 그것의 견본(representative)을 의미하고, 모양은 어떤 사물과 비슷한 대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맥에서는 더 종종 대표적이거나 대리적인 것보다는 유사성과 같은 존재를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사악한 자들의 독은 뱀의 독의 모형이라고 시편 58:4에서 말했다. 두 독은 성격상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적인 견본이나 대리라는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sup>5)</sup> 그렇지라도 그루뎀은 전체적인 논조에 있어서 형상과 모양을 분리해서 그의 사상을 전개하지는 않았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라는 것”은 “존재와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sup>6)</sup>

칼빈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후크마도 창세기 1:26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창세기 5:1에는 모양만, 창세기 5:3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모양과 형상이 사용되었고, 창세기 9:6에는 형상이라는 단어만 사용된 것으로 볼 때, 두 단어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동등한 의미라고 주장한다.<sup>7)</sup>

1) Bernard, *Concerning Grace and Free Will* ix, 28(MPL 182, 1016).

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ed. by John T. McNeill, tr. by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 15. 3. 이후로 *Inst.*, 1. 15. 3.으로 표기함.

3) 이레니우스는 형상을 인간의 합리성과 자유성으로 모양은 인간 안에 있는 영으로 보았다. 이 영은 성령께서 입혀 주신 거룩한 의복을 의미한다. Irenaeus, *Against Heresies*, IV, 4. 3 in Ante-Nicene Fathers, vol. 1, ed.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Grand Rapids: Eerdmans, 1953). 토마스 아퀴나스는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지는 않았고 형상이 주로 인간의 지성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Summa Theologica*, I, 93. 2. 루이스 벌코프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젠은 형상은 인간의 인간다운 특성을 가리키고, 모양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질들로서 계발되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412). 어거스틴은 형상은 지성을, 모양은 도덕적 기능을 가리킨다고 보았고, 벨라민은 형상은 인간의 자연적인 재능을 가리키고 모양은 초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첨가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416). 결론적으로 벌코프는 칼빈과 같이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라고 본다(413-414). 루이스 벌코프 저, 권수경, 이상원 공역, 「조직신학(상)」(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412-416.

4)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 in Luther's Works*, ed. Jaroslav Pelikan, tra. George V. Schick(St. Louis: Concordia, 1958), vol. 1, 60ff. 루터의 이런 표현과 창세기 1:26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비교해 보면, 그 유사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5)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442-443, 각주 번호 7을 보라.

6) *Ibid.*, 444.

7) 안토니 A. 후크마 저,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27; Robert L. Saucy의 견해도 비슷하다. 개혁주의자들과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은 그 단어들을 더욱 동의어적으로 본다. 그 용어들의 상호교체 가능성은 이런 이해를 지지한다(예를 들면 창 1:26; 5:3; 9:6). 그 용어들은 인류에 대한 언급에서 첫 번째 나오는 형상을 두 번째 나오는 모양이 설명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인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즉, “하나님의 모양인 형상.” “Theology of Human Nature”, in *Christian Perspective on Being Human*, 22.

## (2) 신형상에 대한 칼빈의 정의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으로 해석하였다.<sup>8)</sup>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지혜, 의, 거룩”의 수여에 의해서 현시되었다.<sup>9)</sup> 이런 도덕적 속성들은 루터에게서 ‘원의’라고 불려졌다.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로 이런 원의에 한정시켰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고 보았다.<sup>10)</sup>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온전함—그의 완전한 이해력, 이성, 복종하는 감정, 조화로운 감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을 표현한다.”고 주장했다.<sup>11)</sup> 창세기 1:26의 주석에서도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아담이 바른 판단력을 소유하고 이성과 조화되는 감정을 갖고, 모든 감각이 완전하고 잘 조절되며 그의 뛰어난 창조주에 의해 부여된 예외적인 은사임을 인정할 때, 아담이 부여 받은 완전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된다.<sup>12)</sup>

8) *Inst.*, 1. 15. 4;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7), 36. “칼빈이 항상 거울의 견지에서 형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논자 역).

9) *Comm. on Gen.* 1:26, CO 23, 25-27. “하나님의 영광은 독특하게 인간의 본성에서 발산되고 있다. 그럴 때 인간의 본성, 정신과 의지, 감정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골로새서 3:10의 주석에서 형상은 지혜, 의, 하나님의 선함으로 묘사되었고, 고린도후서 3:18에서 그것은 참된 경건, 의, 순결과 지성으로 묘사되었다.

10) 이수영, “갈뱅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한국성서학연구소편, 「한국적 신학의 모색」, 성서학연구소 연구위원논문집(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5), pp. 205-206.

11) *Inst.*, 1. 15. 3.

12) *Comm. on Gen.* 1:26, CO 23, 26: “Ergo hac voce designatur totius naturae integritas, quum Adam recta intelligentia praeditus foret, affectus haberet compositos ad rationem, sensus omnes sanos et ordinatos, vereque bonis omnibus excelleret.”

이런 칼빈의 진술들은 도덕적 형상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루터의 견해보다 광범위한 것이다. 즉, 칼빈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영육 간에 온전함과 이 온전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을 포함한다.

칼빈은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으로 인정한 것 같다. 그는 양심은 “그 안에서 들려주는 자연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되고 동시에 새겨져 있는 법”<sup>13)</sup>이라고 했으며, “인간이 자기와 관련된 신의 심판에 대한 지각을 지닐 때 이 지각(sense)을 양심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sup>14)</sup> 나아가서 “선한 양심은 심령의 내적인 완전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sup>15)</sup>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완전성이라는 위의 두 정의와 비교한다면 양심에 대한 이런 정의는 칼빈에게 분명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임을 보여 준다.

오시안더는 “인간이 단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모형과 원형을 따라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오시안더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들의 형상을 인간 속에 두셨다고 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된 육체는 그때 형성된 육체의 모습의 표본과 전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성자는 성령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그런 견해를 거절했다.<sup>16)</sup>

프랑소아 웬델은 칼빈에게 “사람에게 각인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육체가 되었을 때 그의 성품이 된 온전함과 의로 이루어졌으며, 그 완벽한 모범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줬

13) *Comm. on John* 1:5 in *THE AGES DIGITAL LIBRARY COMMENTARY* (Books For The Ages AGES Software · Albany, OR USA Version 1.0 © 1998). 이후부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동일한 출처임을 나타낸다.

14) *Inst.*, 4. 10. 3.

15) *Inst.*, 3. 19. 6.

16) *Inst.*, 1. 15. 3; *Comm. Gen.* 1:26, CO 23, 27. “Christum esse unicam patris imaginem: sed hunc tamen sensum Mosis verba non recipiunt: In imagine, id est in Christo.”

다.”고 하였는데<sup>17)</sup> 그의 견해는 칼빈의 진술과 큰 모순이 없이 대체로 수용할 만하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 15. 4에서 사람이 둘째 아담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하였다.

### (3) 신형상의 좌소는 영혼인가, 육체인가?

어거스틴은 “인간의 육체는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함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8)</sup> 이런 어거스틴의 주장을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를 영혼에 두었다.

「기독교 강요」 1. 15. 3(1559)에서 칼빈은 “신형상의 주된 좌소가 영혼과 그 능력 안에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가 빛나지 않는 부분은 없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피조물과 대조되는 뛰어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런 칼빈의 진술에 근거하여 게리쉬는 “칼빈은 이미 인간 신체의 직립 자세가 최소한 신형상의 외적인 표시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그러나 칼빈은 창세기 1:26의 주석에서 “하나님의 찬탄할 만한 솜씨가 거기에서 밝게 빛나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하였다.<sup>20)</sup> 토랜스도

17) François, Wendel, *Calvin :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Phillip Mairet(London : Collins, 1963), 176-177.

18) Augustine, *City of God*, XII, 23.

19) Cf. B. A. 게리쉬, “Mirror of God’s Goodness,”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45(1981) : 214.

20) 칼빈 자신의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수영의 견해도 필자와 유사하다. 여기에서부터 칼뱅은 일단 육체와 정신, 지각에서 마음에 이르기까지의 전인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순전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 “외형적 인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는 하나, 그래도 그 영광의 최고 소재지가 정신인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본래적 인간의 순전성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외적으로 나타난 어떤 것이 아니라 “지혜, 덕, 정의, 진리, 거룩함”이라고 보았다.<sup>21)</sup> 따라서 비록 게리쉬의 주장이 칼빈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지만 칼빈의 좀더 명료한 진술들을 고려한다면, 칼빈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영혼 안에 있고 인간의 신체나 지배권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sup>22)</sup> 따라서 게리쉬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며 칼빈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다.

영혼의 기능에 있어서 칼빈은 이해력과 의지에 주목했다.<sup>23)</sup> 칼빈에게 인간의 영혼은 그 자체로 사람이 아니고<sup>24)</sup>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하는 장소이다. 영혼은 이해력과 의지로 구성된다. 대상들을 구별하는 능력으로서 이해력은 영혼의 지도자며 통치자이다. 의지는 이해력이 승인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르며, 이해력이 승인하지 않는 것을 거절한다.<sup>25)</sup> 이 영혼의 기능이 온전할 때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로 볼릴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이 영혼의 기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즉, 이해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지가 순종하는 것이다.

### (4)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최홍석 교수는 “칼빈은 육체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결코 부정

‘지각의 명석함’과 ‘마음의 끈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수영, “칼뱅의 인간론”, 「빛과 소금」, (1985, 5), 118.

21) T. F. Torrance, op. cit., 53.

22) *Inst.*, 1. 15. 3.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와 영혼으로 확장하는 오시안더의 견해를 “하늘과 땅을 무분별하게 섞는 것”으로 간주했다.

23) *Inst.*, 1. 15. 7; cf. *Comm.* on 1 Thess. 5 : 23에서 칼빈은 영을 이성 혹은 지성으로 이해하고 혼은 의지와 모든 감정으로 이해한다.

24) *Inst.*, 1. 15. 3.

25) *Inst.*, 1. 15. 7.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는 성경 진술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창 9 : 6). 더구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이며(롬 6 : 13), 성령의 전이며(고전 6 : 19-20),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칼빈은 신약을 주석하면서 이런 면을 충분히 다루었을 것이다. 문제는 칼빈의 주석의 작업이 「기독교 개요」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sup>34)</sup>

칼빈과 대조적으로 바빙크는 영혼의 도구인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육신과 연결되어 천사와 구별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sup>35)</sup> 벨카우워도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인 것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영적인 속성과 신체적인 속성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한다.<sup>36)</sup> 결론적으로 비록 형상의 주된 좌소가 영혼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는 것은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육체가 없다면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통전적인 견해를 가질 때, 우리는 인간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자들의 견해와 육체의 범위를 하찮게 여기는 리버턴적

34) 브라이언 G. 암스트롱은 칼빈의 신학과 주석이 그의 자신의 종교적 경험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칼빈은 성경에 대한 그의 해석을 교리적 전체에 가져오지도 못했고, 주석에 있어서 객관적이지도 못했다고 혹평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칼빈 자신의 일관성 없음이라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런 상호 긴장을 있는 그대로 두었다고 보는 것이 논자의 견해로는 옳은 것 같다. Brian G. Armstrong, “Response to Calvin’s Conversation to Teachableness,” in *Calvin and Christian Ethics : Fifth Colloquium on Calvin & Calvin Studies*, ed. Peter De Klerk(Grand Rapids : Calvin Studies Society, 1987), p. 82.

35) Herman Bavink, ed. by John Bolt, tr. by John Vriend, *Reformed Dogmatics Vol. 2. God and Creation*(Grand Rapids : Baker Academic, 2006), 559-560.

36) G. C. Berkouwer, *Man : The Image of God*(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2), 77.

영성주의자들의 잘못된 견해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 (5)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성경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소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칼빈은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주장했다.

진실로 우리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완전은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듯이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마 22 : 30).<sup>37)</sup>

이런 주장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안에서보다도 천사에게서 좀더 완전하게 발견되는데 천사들의 지성이 사람들의 지성보다 좀더 완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38)</sup> 하인리히 헤페는 “신이 자기 형상대로 인격적이고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 즉 천사를 창조하였다.”고<sup>39)</sup> 하였으며, 플라누스의 말을 빌어 “신은 천사를 진리, 즉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자기 형상을 가진 영적 인격체로 창조하였다.”고 하였다.<sup>40)</sup> 또한 레이든 신학통론(XII. 7)은 “태초에 모든 천사들이 선하게, 그리고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확증한다.”고 하였다.<sup>41)</sup>

대조적으로 벨코프는 칼빈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천사가 몸이 없고 하급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37) *Inst.*, 1. 15. 3.

38)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 93. 3.

39) 하인리히 헤페 저, 이정석 역, 「개혁파 정통교의학 1」(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301.

40) *Ibid.*, 309.

41) *Ibid.*, 309-310.

하였다.<sup>42)</sup> 유해무 교수도 시편 8:6~7을 해석하면서 “천사가 만물의 지배자로 부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자는 인간이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하였다.<sup>43)</sup> 바빙크는 원의(참된 지식, 의, 거룩)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여 이 원의를 보유한다는 면에서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루터란 신학을 비판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됨은 이런 도덕적 성향만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육체가 없고 영만 있는 천사보다는 영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더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했다.<sup>44)</sup>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입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sup>45)</sup>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요 4:24)라는 표현과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눅 22:36)라는 칼빈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바빙크의 주장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라는 계시록의 증언을(계 19:10) 설명하기 어렵다. 바빙크와 대조적으로 그루렘은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모양에 대한 많은 측면들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인간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sup>46)</sup> 본 논문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인간이 하나님

42) 벌코프, 「조직신학(상)」(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416.

43) 유해무, 「개혁교의학」(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238.

44) Herman Bavink, ed. by John Bolt, tr. by John Vriend, *Reformed Dogmatics* Vol. 2, *God and Creation*(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584-585.

45) Ibid.,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천사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이유로 천사들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들이요, 자녀다”(556). “하나님의 성육신은 천사들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이며, 인간의 몸이 그 형상의 본질적인 성분이라는 증거이다”(560). (논자 역).

46)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442, Note no. 12.

과 이웃과 피조물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라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을 돕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것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 (6)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인가?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전 구조를 통하여 그의 영원한 지혜와 선과 능력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았으며, “하나님께서로부터 눈을 부여 받은 신실한 자들은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반짝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sup>47)</sup>

게리쉬는 칼빈에게 있어서 전체 창조질서가 불가시적인 살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불가해적인 그의 지혜, 권능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sup>48)</sup> 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의식적으로 감사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말 못하는 피조물과는 구별된다고 보았다.<sup>49)</sup> 동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영혼이 없기에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임을 의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탁월성을 하나님께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sup>50)</sup> 즉,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이며, 이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였다.<sup>51)</sup> 그러므로 도덕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 뿐이다.

47) *Comm.* on Heb. 11:3, CO 55, 146.

48) *Inst.*, 1. 15. 1; 1. 5. 4; 1. 5. 3. “simulachra vocat invisibilium”(불가시적인 것들의 형상).

49) B. A. 게리쉬,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거울”, 146.

50) Ibid., 146-147.

51) Ibid., 146-147, 각주 번호 29.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의 의미로서는 게리쉬와 권호덕 교수의 말처럼 칼빈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sup>52)</sup> 성경은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고 말한다(롬 1:2). 나아가서 성경은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을 한다. 특수한 경우지만 나귀가 발람에게 말한 경우(민 22:28-30), 돌들이 소리지르리라고 한 경우(눅 19:40), 해와 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표현(시 19:1-5),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예수님의 명령을 대기하는 것(마 17:27), 물고기들이 예수님이 명한 위치에서 베드로의 그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요 21:6) 등 이들이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반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부패했다고 한다(렘 17:9). 즉, 만물들은 인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면에서는 온전히 반영한다.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와 영광과 권능을 존재론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그 운행에 있어서 더 순종적이다(사 48:13).<sup>5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면이 하나님의 형상의 주된 요소이므로 비인격적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다.

따라서 칼빈에게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리쉬의 표현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쨌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로서 인간이 자연 환경을 잘 섬겨야 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2) Cf. 권호덕, “거울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 이해”, 5. 여기에서 권 교수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http://www.kirs.co.kr/bbs/data/studies1/1171523723/>.

53)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뿔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 2)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은 하나님의 형상인가?

### (1) 칼빈은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에 넣었는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인간의 직립자세를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전제하에 마지못해 인정했다.

나는 내가 방금 진술한 원리, 즉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본성이 그것에 의해 모든 종류의 살아 있는 피조물들 위에 균립하는 온전한 탁월함으로 확장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다른 생물들은 땅을 굽어보는 데 반하여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응시하고 별들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무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외양적인 표시들에서 보여지고 빛나는 것이 영적이라고 간주된다면.<sup>54)</sup>

그러나 이런 직립자세가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칼빈이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 15. 4에서 보다 명료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배권을 거절했다.

마치 인간이 만물의 상속자요, 소유자로 세워졌다는 표시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배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위치시키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sup>55)</sup>

반면에 창세기 1:26의 주석에서는 다소 명료하게 지배권에 대해서

54) *Inst.*, 1. 15. 3.

55) *Inst.*, 1. 15. 4.

말했는데 이것 역시 일관성은 없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 안에 있다는 견해가 전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에게 지배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언급한 크리소스톰의 견해도 그런 견해보다 “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sup>56)</sup> 그러면서도 그 말 직후에 칼빈은 지배권이 “하나님 형상의 매우 작은 부분”이라고 인정했다.<sup>57)</sup> 「기독교 강요」와 주석에서 나타나는 이런 칼빈의 일관성 없음에 대해서 최홍석 교수는 지엽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이라고 관대하게 평가했다.<sup>58)</sup> 아무튼 칼빈의 관점은 인간의 직립자세나 지배권이 주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2) 인간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에 넣는 사람들의 견해와 이유<sup>59)</sup>

헤르만 바빙크는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 활동, 지식과 의와 거룩, 영혼과 결합된 몸, 인간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다.<sup>60)</sup> 바빙크는 소시니안들이 사람의 전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의 전 내용을 지배권에 두는 것이<sup>61)</sup> 지나치다고 비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6) 케리쉬는 칼빈에게 “크리소스톰이 이 형상을 사람의 자연지배와 동일시한 것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다. 케리쉬, op. cit., 144-145.

57) *Comm. on Gen 1 : 26*, CO 23, 26. “Est quidem haec imagines Dei aliqua portio, sed perquam exigua.”

58) 최홍석, “칼빈의 신형상론”, 「신학지남」, 통권 225(1990, 9), 152.

59) Norman F. Douty, *Union with Christ*(Pennv. Swengel : Reiner Publications, 1973), 6-7.

60) Herman Bavink, ed. by John Bolt, tr. by John Vriend, *Reformed Dogmatics* Vol. 2. *God and Creation*(Grand Rapids : Baker Academic, 2006), 554-562.

61) *Catechismus Racoviensis*, ed. G. L. Oederus(1739), p. 48. 여기에서 형상은 창세기 1 : 26에서 잠정적으로 입증되듯이, 사람의 “potestas et dominium in omnes res a Deo conditas supra terram”으로 구성된다고 말해진다. G.

하고 지배권이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지배권은 하나님의 형상에 외부적으로 덧붙여지거나 보충적인 특별한 선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으며, 그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높여져서 만물의 주요 왕으로 임명되었다고 보았다.<sup>62)</sup> 루이스 벨코프와<sup>63)</sup> 박형룡은 바빙크의 견해를 그대로 따랐다.<sup>64)</sup>

안토니 후크마는 칼빈이 인간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한 것을 비판하면서 적어도 창세기 1 : 26에 의하면 지배권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측면이라고 하였다. 그는 시편 8편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내용상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해석하였다.<sup>65)</sup>

베르두인은 “인간은 다스리기 위해 지음 받은 피조물이며 그런 피조물로서 인간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 속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중심 요점이라고 하였다.<sup>66)</sup> 웨인 그루넬은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의 측면들의 맨 마지막에 분명히 명시했다.<sup>67)</sup> 니겔 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통치권이라고 보지는 않

C. Berkouwer, *Man : The Image of God*(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2), 70에서 재인용.

62) Ibid., 560-561.

63) 루이스 벨코프 저, 권수경, 이상원 공역, 「조직신학(상)」(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417.

64) 「박형룡박사저작전집 III. 교의신학 : 인죄론」(서울 :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105.

65) 안토니 A. 후크마 저,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88, 36-38. 또한 133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만물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임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66) Leonard Verduin, *Somewhat Less than God : The Biblical View of Man*(Grand Rapids : Eerdmans, 1970), 27.

67) “(14)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 특별히 사람은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권한도 부여 받게 될 것이다”(1 Cor. 6 : 3 ; Gen. 1 : 26, 28 ;



았으나 통치권을 문화명령으로 보아 그 문화명령이 원래 중심적인 것이었는지 아닌지 묻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의(왕직)와 거룩(제사직), 지식(선지자직)의 반영으로 보았다.<sup>68)</sup> 「넬슨 새성경사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직후에 그들에게 땅에 대한 지배권 혹은 권위를 준 것은 피조물들을 능동적으로 돌보는 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고 있다.<sup>69)</sup> 크리소스톰과 같이 찰스 하지도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했다.<sup>70)</sup>

### (3)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와 그 이유

G. C. 벨카우워는 인간의 지배권이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부분이라는 소시니안들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피조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지배권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같은 것이 아니다.<sup>71)</sup> 둘째, 시편 8편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진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은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s. 8 : 6-8).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448. (논자 역).

68) Francis Nigel Lee, *The Origin of Man*, tr. By 이승구, 「성경에서 본 인간」(서울 : 엠마오, 1983), 129-131.

69) Youngblood, Ronald F. ; Bruce, F. F. ; Harrison, R. K. ; Thomas Nelson Publishers : *Nelson's New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Nashville : T. Nelson, 1995.

70)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II*(Grand Rapids : Wm. B. Eerdmans Company, 1977), pp. 102-103.

71) G. C. Berkouwer, *Man : The Image of God*(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2), 70-71.

밀라드 J. 에릭슨은 지배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 견해라고 명명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지배권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으며, 시편 8편과 창세기 1장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에릭슨은 벨카우워가 했던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배권은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로서 서로 구별되는 것이며, 시편 8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점을 들어 기능적 견해를 반대한다.<sup>72)</sup>

리차드 왓슨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권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지배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면에서 이 지배권은 우연적인 것이다. 창조 후에는 하나님은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갖게 되었다.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사람이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지배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의 결과이지 형상 자체가 아니다.<sup>73)</sup>

논자의 견해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배권에 대한 기초요 원인이지만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벨카우워의 주장은 다소 불합리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은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74)</sup> 즉, 하나님의 형상과 그 결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지배

72) 밀라드 J. 에릭슨 저, 나용화, 박성민 공역, 「인죄론」(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08-109.

73) Richard Watson, *Theological Institutes : or A View of the Evidence, Doctrines, Morals of Christianity*, Vol. II(London : Published by Kershaw, 14, City-Road, and 66, Paternoster-Row, 1826), 172.

74) 비치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은 선행성에 있어서는 인간의 영적이고 불멸하는 본성을, 형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거룩을, 결과에 있어서는 그의 지배를 뜻한다”고 하였다. 벨코프 저, 권수경, 이상원 공역, 「조직신학(상)」(서울 : 크리스

권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 3. 신형상은 실재인가? 관계인가? 기능인가?

#### 1) 실재라는 견해

밀라드 J. 에릭슨은 실재론을 지지하는데 실재론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구조 속에 있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나 속성과 동일시하는 것”이다.<sup>75)</sup> 에릭슨은 칼빈이 타락 후에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으며, 이 남아 있는 잔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고 주장한다.<sup>76)</sup> 실재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자리한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내주하는 성질이거나 능력이다. 에릭슨은 살인(창 9 : 6)과 저주의 금지(약 3 : 9-10)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구조에 본래적으로 내재한다고 본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본성들, 즉 영혼, 신체, 지성, 의지, 감정들을 하나님의 기본 형상으로 본다.<sup>77)</sup> 이런 것들은 실재하는 것이고, 상실되지 않는 것이다.

#### 2) 관계라는 견해

토란스는 칼빈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의 자연적인 속성이 아니라

찬다이제스트, 1992), 417.

75) 밀라드 J. 에릭슨 저, 나용화, 박성민 공역, 「인격론」(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86.

76) Ibid., 91.

77) Ibid., 110, 112.

참된 인간성의 특징인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 안에서 영적인 반영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마음에 각인된 하나님의 행동이며, 사랑과 복종의 행동에 의해 사람의 소유가 된다. 즉, 사람 안에 있는 신형상의 강함과 유지는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였다.<sup>78)</sup> 이런 토란스의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내재하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로서 본 것이다. 즉, 칼빈의 신형상이 실재적인 형상이 아니라 관계적인 형상이라고 본 것이다. 백석대의 유원열 교수도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보았다.<sup>79)</sup>

위의 두 관점들은 다음과 같은 칼빈의 진술에 근거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영혼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능동적인 반응 속에서만 인간의 소유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유래하는 축복이며<sup>80)</sup>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축복이다.<sup>81)</sup> 그것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권능으로 갖게 된다.<sup>82)</sup>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적인 반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동적인 응답으로서의 역동적인 반영이라는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sup>83)</sup>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1. 15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78)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London : Lutherworth, 1949), 52.

79) 유원열, “칼빈의 인간론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95, 24.

80) *Inst.*, 2. 2. 1.

81) *Inst.*, 2. 2. 16.

82) *Comm. on Hos.* 2 : 19-20.

83) *Comm. on 2 Pet.* 1 : 4.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최종판 2. 1. 4와 2. 2. 12에는 있다.<sup>84)</sup> 그러므로 칼빈에게 신형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토란스의 통찰력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진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조된 인간이 그의 주와 올바른 위치에, 즉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자신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임에 감사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그 안에 신적인 영광이 반사될 것이며 따라서 그는 신의 형상이 된다.<sup>85)</sup> 오토 베버도 관계적 형상을 지지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나 속성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은 특별히 불가침권과 지배권을 지닌 위치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sup>86)</sup>

베버의 견해는 지배권에 관한 것만 제외하면 칼빈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점은 에릭슨에 의해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과 관계가 비뚤어지고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 둘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sup>87)</sup> 에릭슨의 주장과 “형식 없는 내용은 존재할 수 없다.”는 베일

84) *Inst.*, 2. 1. 4. “불신앙으로 통해서 여인은 뱀의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갔다.” *Inst.*, 2. 2. 12.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웃에 대한 자선, 거룩과 의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때문에 본성을 넘어서 외래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것들이 *취해졌었다고* 추론한다.”(홀림체는 나의 강조임).

85) *Inst.*, 1. 15. 3.

86) O. Weber, *Foundations of Dogmatics* Vol. 1.

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sup>88)</sup>

### 3) ‘실재와 관계 둘 다’라는 견해

관계론적인 형상론을 주장한 토란스와 실재론적인 형상론을 주장한 에릭슨과 달리 게리쉬는 칼빈의 신형상론에는 관계적인 측면과 실재적인 측면이 둘 다 존재한다고 보았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재능뿐 아니라 관계도 포함된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형상을 사람이 그의 속성으로 소유한 것만으로 정의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세까지 포함시켜 정의했다.<sup>89)</sup>

물론 게리쉬는 하나님의 형상을 실재론보다는 관계론적으로 다소 치우쳐 해석하는 감이 있다. 다음과 같은 그의 진술은 그런 그의 경향을 분명히 보여 준다.

특별한 ‘선물’을 산더미처럼 부여 받은 사람이라도 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완전히 인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지 않다.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람의 인간성의 본질이 된다. 그러므로 신성의 본질을 이루는 관념과 인간성의 본질을 이루는 관념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선의 원천인 하나님의 짝은 그의 감사하는 피조물인 인간이다. 그리고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갈뱅에게 있어서 인간성의 파괴와 다름없었다.<sup>90)</sup>

87) 밀라드 J. 에릭슨 저, 나용화, 박성민 공역, 「인죄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06-107.

88) John Baillie, *Our Knowledge of God*(New York: Scribner, 1939), 30.

89) B. A. 게리쉬,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거울”, 도날드 매김 편저,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서울: 생명의말씀사, 1984), 141.

실재론적인 형상이 칼빈에게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릭슨이 말한 대로 결국 타락 후에도 인간이 짐승의 차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다고 한 진술을 살펴보아야 한다.

#### 4. 신형상의 상실과 회복

##### 1) 신형상의 상실과 잔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남아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향진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빈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sup>91)</sup> 그 이유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파괴되고 멸절되어 없어졌다고 말하다가도 반면 어느 경우에는 그의 형상이 전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기도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sup>92)</sup>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후에 상실되었다는 이향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칼빈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 손상되었고, 거의 지워져서 혼동되고, 불구가 되었고, 병에 찌든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sup>93)</sup>

그가 창조주에게 반역한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받은 후에 전적으로 변질되고 쇠퇴하였으며 그의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졌다.<sup>94)</sup>

90) Ibid., 148.

91) 이향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연구”,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2000년도 미간행 석사논문, 16-17.

92) Ibid., 17.

93) *Inst.*, 1. 15. 4.

94) *Comm.* on Gen. 3 : 1.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당시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잔여물들을 갖고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이 동일한 형상이 너무나도 몽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불의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맹목과 무지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sup>95)</sup>

그러나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한다고 하는 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칼빈의 진술들에 근거한다.

누가 이 사실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다고 한다면 저기에 대해 쉽게 답변해 주겠다. 첫째, 그 형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 적잖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하늘나라의 거룩하신 창조주는 제 아무리 인간이 부패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분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지키고 나아가신다는 사실이다.<sup>96)</sup>

인간이 전도되고 타락한 본성 중에는 아직도 약간의 불꽃이 깜빡이고 있어 인간에게 이해력을 제공하는 이성적 본질이 있음을 드러낸다.<sup>97)</sup>

하나님을 찬송하는 척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에게 욕을 퍼부음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업적을 두고 찬송을 돌린다면 특별히 그의 형상과 영광을 빛나게 보여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위선이다.<sup>98)</sup>

95) Sermon on Job 14 : 13-14 ;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76.

96) *Comm.* on Gen. 9 : 6.

97) *Inst.*, 2. 2. 21.

98) *Comm.* on James 3 : 9.

그렇다면 이런 모순되어 보이는 칼빈의 진술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칼빈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지상적인 일에는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지만 천상적인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부패하였다고 함으로 실제설과 관계설의 중간을 따른다. 여기에서 천상적인 것은 “순결한 지식, 참된 의 거룩함 및 하늘나라의 비밀을 뜻하는 것이며”<sup>99)</sup> 지상적인 것은 “세상정치, 가정생활, 기계기술 및 문화, 과학 예술전반”을 의미한다.<sup>100)</sup> 이것은 자연은총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신형상의 잔존과 상실에 관한 한 칼빈은 모순처럼 보여도 실제로 모순이 아니다.

니젤도 칼빈에게 죄로 인한 부패가 인간성 전체를 오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의지의 잔여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01)</sup> 반틸도 유사하게 신형상이 잔존한다고 주장한다.<sup>102)</sup> 게리쉬도 칼빈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이 사회윤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을 저주하고 살인하는 것을 금하며 사람을 선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sup>103)</sup> 게리쉬는 비록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아 있게 하는 실재적 형상은 잔존하지만 도덕적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관계적 형상이 상실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본다.<sup>104)</sup> 논자의 견해로는 지상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이 그리스도 안에서

99) *Inst.*, 2, 2, 13.

100) *Inst.*, 2, 2, 13-17.

101) Niesel, *op. cit.*, 86.

102)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을 때 그가 짐승이 되거나 악마가 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이 윤리적으로 소원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기는 하였을지라도 그의 종교성과 신의식을 간직하고 있다”: Henry R. Vantil, *The Calvinist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서울: 성암사, 1972), 73.

103) B. A. 게리쉬,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거울”, 도날드 매김 편저,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서울: 생명의말씀사, 1984), 141.

104) *Ibid.*, 149.

도덕적 형상의 회복과 더불어 피조물을 잘 돌보고 섬기는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귀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 2) 신형상의 회복

신형상의 회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니젤은 칼빈에게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참형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sup>105)</sup> 즉, 참된 신형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니젤의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과 일치한다.

아담은 일종의 거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은 죄에 의해서 지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되어야만 한다. 더욱이 진실로 신자들의 중생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sup>106)</sup>

그렇다면 신형상의 회복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옛 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것, 즉 회개하는 삶을 통하는 것이다. 이 회개는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짊, 내세에 의 목상 등으로 표현된다.<sup>107)</sup>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내면의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이 살고 육이 죽는 것이 형상의 회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108)</sup> 칼빈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참된 경건과 의와 순결과 지식에 이르러, 우리가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고

105) 빌헬름 니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65.

106) *Comm. on Eph.* 4:24, *CO* 51, 208.

107) *Inst.*, 3, 7, 4-3, 11, 6.

108) 영과 육에 대한 칼빈의 정의에 대해서는 *Comm. on Rom* 7:14; *Comm. on Gal.* 5:17; *Comm. on Psalms* 78:39을 참조하라.

하였다.<sup>109)</sup> 즉,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육을 죽이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복종이며, 인간 내적인 질서, 곧 이성이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의지와 감정이 순종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관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둘째 측면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또다른 측면으로서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무효로 하고 지워 버릴 뿐 아니라 그 형상의 아름다움과 존엄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한다.<sup>110)</sup>

이 창조는 인간이 상호 간에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며 공동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sup>111)</sup>

에베소서 3:23의 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와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보았는데 의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거룩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된 존재의 순결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sup>112)</sup> 즉, 에베소서 주석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시켜 설명했다.

아쉽게도 칼빈은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의 세 번째의 측면, 즉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109) *Inst.*, 1, 15, 4.

110) *Inst.*, 3, 7, 6.

111) *Comm.* on Gen. 3:1; 9:6.

112) *Comm.* on Eph. 3:23-24.

## 5. 평가와 결론

칼빈은 신형상을 논함에 있어서 형상과 모양을 동일한 의미라고 보았으며, 신형상은 “아담이 바른 판단력을 소유하고 이성과 조화되는 감정을 갖고, 모든 감각이 완전하고 잘 조절되며 그의 뛰어난 창조주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칼빈은 신형상의 좌소를 영혼으로 보았으며, 육체에도 하나님의 숨씨가 빛나지만 오시안더와의 논쟁 속에서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 또한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으며,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도 하였다. 칼빈에게 신형상은 실재적인 요소로서 이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타락 후에도 지상적인 일에 유용한 역할을 한다. 관계적인 요소로서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영혼 안에서 이해력과 의지의 질서 잡힌 삶,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표현되었다. 칼빈이 실재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을 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칭송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기능적인 요소로서 세상에 대한 지배권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논자는 칼빈의 신형상론에서 몇 가지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실재론적 관점에서 바빙크가 제시했듯이 육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이며 성령의 전이므로 신형상에 영혼과 결합된 육체를 보다 분명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인 측면, 즉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sup>113)</sup> 그

113) 박원기 교수는 이런 면에서 나와 같은 견해이다. “동물과는 다르게 똑바로 선 자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리, 창조를 위한 청지기 역할, 자기성찰의 이성,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 인격성,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인간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남녀관계 등이다. 이상의 용어는 막연한 공상에서가 아니라 철학과 신학이 하나님의 형상의 참뜻을 오랜 세월을 걸쳐

이유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적 섬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sup>114)</sup> 인간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들을 신음하게 했다. 특히 자연환경 자원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과 무절제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위협 받고, 이것이 인류사회를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sup>115)</sup>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창조주요, 보호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서 오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기다 가셨다. 비록 그리스도가 환경 보전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인간이 자연 환경을 다스림에 있어서 약탈과 착취의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로 해야 한다는 것은 보여 주고 가르쳐 주었다.

마지막으로 논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관해서 안토니 후쿠마의 삼중적 관계성을 말하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나온 것인데 그리스도는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둘째, 온전히 이웃을 향해 서 있었다. 셋째,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린다. 이 다스림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고기를 잡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음에서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고, 이웃 앞에 온전히 서야 하며,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sup>116)</sup>

탐구한 끝에 채택한 용어이다.”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목회와 신학』(1990, 9), 172.

114) 최홍석, “창조질서를 위한 개혁신학적 접근”, 『신학지남』 통권 233(1992, 9), 131-32.

115) 존 카르모디는 불교와 도교가 자연친화적인 데 반해 성경의 종교는 지구의 적이라고 비난했다. John Carmody, *Ecology and Religion: Towards a New Christian Theology of Nature*(New York: Paulist Press, 1983), 195.

116) 안토니 A. 후쿠마 저,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

물론 이 다스림은 약탈이 아니라 돌봄과 섬김이다. 단지 논자는 여기에 자기 내부 요소들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덧붙이고자 한다. 즉, 영혼 안에서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정은 이를 기뻐하며, 의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질서 잡힌 삶이다. 이것은 칼빈이 말하는 원의와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참된 자아상이다. 이런 논자의 견해는 신형상에 대한 실재설, 관계설, 기능설을 통합한 것이다.

회, 1991), 131-145. 대조적으로 최근에 박해경은 칼빈에게서 중요한 관심은 관계론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런 근거는 골로새서 3:10과 요한일서 3:2에 대한 칼빈의 주석과 「강요」 2. 1. 1. 에 나타난 영생과 불멸에 대한 명상이다. 박해경, “Calvin’s Doctrine of the IMAGO DEI”, 『칼빈연구』 제2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284-90. 논자는 이런 주장이 칼빈의 원래 의도에 어느 정도 충실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칼빈 자신이 관계론적 형상론을 충분히 강조했으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과 피조물에 대한 책임 있는 관계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여겨지기에 후쿠마의 삼중적 관계론적인 접근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비록 칼빈이 내세에의 묵상을 강조하였고 여지껏 보수적 장로교단이 영혼구원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 상황은 내세와 현세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오히려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이고 그리스도가 보인 모범이라고 여겨진다. 내세의 심판과 상급은 현세의 신앙적인 삶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삶이 피조물을 돌보는 하나님과 닮아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라는 면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것이다. 불멸의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맛보는 것이다.